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寬勳洞 朝鮮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徐光淳
印刷人
振替口座京城九九〇四番

時勢觀

桂下散人

易에曰窮則變ᄒ고變則通이라ᄒ니窮은其時也오變은其勢也오通은其人에在ᄒ지라故로天下에時를因ᄒ고其勢를順히ᄒ야通케不窮ᄒᆫ時가無ᄒ며不變ᄒᆫ勢가無ᄒ고亦人을由ᄒ야通치아니홈이無ᄒᆫ지라天下가天下됨으로부터大局이隨時異勢ᄒ야小窮則小變ᄒ고大窮則大變ᄒ며東西를勿論ᄒ고或彼此의互窮互變홈이迭變ᄒ야今에至ᄒ야其窮을極ᄒ고其變을盡ᄒᆫ지라東亞로論ᄒ면大陸에中國이秦漢以降으로泰西로論ᄒ면羅馬以後로其時勢의變遷홈이幾千古에인지屈指難計인바前日에色種이異ᄒ고區域이別ᄒᆫ故로交通이別無ᄒ더니漸々히西歐文化가日進홈으로漸次交涉이頻頻ᄒ나各히門戶를鎖ᄒ야文字가殊ᄒ고利로挽回天下ᄒ야輪蹄를用홈이以來로車船이遠路를作ᄒ고氣火를用ᄒ야造化가國策을爲ᄒ야十萬里外幾千百國의窮變奇肱之域에도無處不探ᄒ야全地球上이一大錯綜聯絡ᄒᆫ지라於是乎強ᄒᆫ者와弱ᄒᆫ者가並ᄒ고優가劣을勝ᄒ야各其貪慾不己홈으로萬國公法으로此를限制ᄒ나強弱이同치못ᄒ야公法이不如槍砲라ᄒ야世界公論도無視不修ᄒᄂ니氣를爭ᄒ며國을廢ᄒ고機械를搆홈으로殫慮窮習ᄒ야強大國은相雄相爭ᄒ고弱小國은惴々栗々ᄒ야或爲呑倂ᄒ며或爲保護ᄒ야難保朝夕殘喘ᄒ니於是에天下가窮홈이極ᄒ야變이無ᄒ면理가엇지止ᄒ리오故로歐洲戰爭이思議不到에勃發ᄒ야五年間에連戰連勝ᄒ나人心이忽變ᄒ야國內에革命이起ᄒ야遂히聯合國에對ᄒ야屈服ᄒ며帝位를退ᄒ기에至ᄒ고天下에侵略狼貪으로ᄒ든者가一朝에敗ᄒ고……

（未完）

英國勞働黨과 勞農政府

波蘭國의 波蘭援助에 關ᄒ야「로이드 조지」氏와「밀란」氏間에一致케되얏스나英國의波蘭援助에對ᄒ야國內에셔此를非難ᄒ야其實行을障害ᄒ는勞働黨一派에不外ᄒᆫ事는世人의周知ᄒᄂ바이라然이나英國勞働黨과露國勞農政府間에何等의關係가存在ᄒᆫ지吾人은此에對ᄒ야知得홈이必要가無ᄒ다「레닌」氏는英國勞働黨의 委員에게付託ᄒ야英國勞働黨에게送致ᄒᆫ書翰에依ᄒ즉此間의消息은自然明白히되얏스니……

現今의 思想問題 (三)

新興勢에依ᄒ야各種思想問題가流布됨에對ᄒ야如何ᄒᆫ態度로應ᄒ야批判할것인가……

百號紀念號發行

本報가此世에出現ᄒᆫ지日로計ᄒ야八月十四日은百數에治滿ᄒ지라

此百日은不過是三個月一旬인즉短促ᄒᆫ期間이라云ᄒ나新生에愛護心으로因ᄒ야老大時十年經過보다長久ᄒᆫ歲月과갓흔觀念이有ᄒ도다

그럼으로世에嘉靖ᄒᆫ新年兒라도三日에稱小慶ᄒ고初七、二七、三七、日에亦稱慶ᄒ고百日에至ᄒ야ᄂ隣里를招待ᄒ며同里人이來賀치아니ᄒᄂ가

本報ᄂ白頭山以下十二宗山이骨格되고鴨綠江以南에十二宗水가筋脈되고二千萬民族의그精神이라

皇々其泣에戰路를擧ᄒᆫ我檀城의江山無疆ᄒᆫ健兒에同情을엇마나博得ᄒ얏ᄂ

ᄒᆷ을며疾風을遭ᄒ고暴雨를經ᄒᆫ時마다意志가더욱堅確ᄒ야我檀君族은小壯老年을勿論ᄒ고夢ᄒ며醒ᄒ며愛ᄒ며護ᄒ야本報를萬壽無疆ᄒ라고誠心으로祝ᄒᄂ者自認ᄒ노라

今에本報愛讀者諸位와其未讀者諸位에祝辭이나賀語이나又ᄂ致意ᄒ시ᄂ意로投稿ᄒ심을感謝히受ᄒ야本報一百號記念을作ᄒᄂ同時에紙面을擴大ᄒ고且倍數印出ᄒ야自祝의心으로諸位에愛護心을奉酬코져ᄒᆷ

投稿의 規程

一、論壇　實際를論ᄒ고虛文을去ᄒ야十四字九十行以內
一、短編小說　諷刺委曲ᄒᆫ語調로十四字一百行以內
一、滑稽短評　淸楚新鮮ᄒᆷ으로十四字五十行以內
一、詞藻　五六七言絶句律詩爾隨意
一、歌謠　語意深長ᄒ야心理를感發케調格은無碍ᄒᆷ

以上의原稿ᄂ八月二十日前期ᄒ야本社로送致ᄒ시되住所氏名과何原稿를紙面에必히記入ᄒ시옵然露名을不肯ᄒ시ᄂ諸位ᄂ裡面에記入ᄒ시옵但投稿에取捨筆削의權은本社에在ᄒᆷ

百號當日發行ᄒ기豫定이던百號紀念號ᄂ不得已ᄒᆫ事勢가有ᄒ와玆에延期ᄒ야來二十四日에發行ᄒᆷ

旣往의 講草

見田

千九百十九年（己未）十二月頃에耶穌基督의誕生日을機會로ᄒ야京城基督靑年會館內에셔萬國聯合基督靑年大講演을一週間을繼續ᄒ야開催ᄒ얏ᄂᆫ디當時演士ᄂ다幾名士의位에在ᄒᆫ者이엿섯ᄂ디此講演은過去의陳說이어서歎々히……

特別大割引大發賣廣告

今般本商會에셔當地產出優良人蔘各種을左記와如히廉價로特別大割引ᄒ와都散賣ᄒ오니內外國愛用ᄒ시ᄂ僉位ᄂ一次注文ᄒ심을伏望ᄒᆷ니다

高麗人蔘定價表

特甲號	甲號
二十片廿一圓	二十片二十圓
三十片二十圓	三十片十九圓
四十片十八圓	四十片十七圓
五十片十六圓	五十片十五圓
六十片十四圓	六十片十三圓
八十片十二圓	八十片十一圓
百片十一圓	百片十圓

廣直蔘普通每斤에對ᄒᆫ價額八圓
廣曲蔘普通每斤에七圓
松曲蔘普通每斤에十一圓
以上（但遠地ᄂ引換代金）

開城郡北本町三九九番地
高麗人蔘開城商會
主 孫得和

開業廿週年記念 ◎新築成落披露◎

多年僉位의愛顧를萬分一의이나報答코져ᄒ와今般新建築과共히記念을際ᄒ와自祝의意味로陶磁器類를普通市勢以外一割引으로販賣코져ᄒ오니弊店의薄利多賣主義를一顧ᄒ야쥬시옵
期限八月一日부터九月末日까지

京城府梨峴市場北門外
雲泉商店
主 禹啓鈺

陶磁器大割引賣出

海陸物產委托賣買穀物仲介

京城府南米倉町一四番地（南大門內）
▪信成商會
主任 金炳贊
長電話一四八八番

近日現出된純고무底「輕便靴」

四大特色

1 堅固耐久
2 價格低廉
3 穿用便利
4 製樣美麗

上記四大特色에對ᄒ야詳述ᄒ얏슴으로更告ᄒᆯ바업스나尙히此에添告ᄒᆯ바ᄂ現今我經濟界의進調에伴ᄒ야近來流行ᄒᄂ和鞋ᄂ缺點이有ᄒ나「改良화」ᄂ諸種화의缺點과短處를補製ᄒ야江湖諸僉의嗜好에適當토록製作ᄒ얏사오니一次試之穿用ᄒ야보시기를仰望ᄒ노이다

初級輕便靴 一足 一圓二十錢 至一圓九十錢
쓰子（俗稱加方）一足 一圓九十錢 至一圓二十錢
不著羅紗製造靴

但地方에ᄂ引換代金이되郵料ᄂ注文諸位가當ᄒᆷ
京城府鍾路四丁目四十六番地
京城物產商會

洋靴界明星

精良ᄒᆫ原料와特殊ᄒᆫ技術로堅實美麗케製造ᄒ와江湖諸氏에게酬應ᄒ오니倍前愛顧ᄒ심을務望ᄒᆷ
▲地方에ᄂ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ᄒ옵니다

洋靴定價表

福壽短화	自十三圓으로至十	
福壽編上화	五圓々지自十四으로至十	
깃도短화	七圓々지自十六圓	
깃도編上화	自二十圓々지自十九으로至二	
깃도、護謨形其他	六圓々지	
은編上화同價格		

京城府寬勳洞百二十六番地
信行洋靴店
主 金泰鉉

補陰補陽　延年益壽

蔘茸唐草各種補藥精製東西洋藥各種金柱納等化粧品各種大特廉價大發賣

商品目錄

品名	定價
鹿茸大補湯 一劑	二十圓
人蔘養榮湯	一圓
四物湯	三圓五十
六味地黃湯	一圓
八味丸	四圓
十全大補湯	二圓五十
雙和湯	三圓
水和飲	七十錢
安胎飲	八十錢
加益氣湯	五十錢
補中益氣湯	十錢
增補煎丸	八圓

京城府上信洞六九六番地
廣熙堂大藥房

特典？

●機械의完備
●選手의職工
●原料의取擇
●不變의染料
●製品의優秀
●價格의特廉
◉無欠의保證
各種具備（地方은代金引換）

都賣散賣
月星商會
京城仁寺洞九九
（青年會館隣）

五淋即治　淋疾丸

◆可恐ᄒᆯ淋病◆
男女를勿論ᄒ고可恐ᄒᆯ바ᄂ淋病이니一次淋病에罹ᄒ면下焦元氣損失은姑捨ᄒ고更及後生ᄒᄂ니此可恐ᄒᆯ淋病에受苦ᄒ시ᄂ諸位ᄂ斯速히此淋疾丸을服用ᄒ시오淋病藥이許多ᄒ나此淋疾丸은實効如神ᄒᆷ을確實이擔保ᄒᆷ

効能

淋疾、淋渴、尿道炎、白濁、五淋、白淋、勞淋、血淋、梅毒、石淋에如神

定價

十日分 一圓五十錢
二十日分 二圓五十錢

大力丸製造本舖
京城西小門外四街側
洪濟堂藥房
李敏洪 白
電話二六五四番
振替京城四五八六番

洋襪製造開業廣告

斯界의名匠을聚ᄒ고原料의精粹를擇ᄒ야洋襪界에一新紀元을劃코자玆에本店을開業ᄒ오니江湖僉位ᄂ愛護ᄒ소서

營業種目

品目		單位	價格
○上海式底厚	一種	一打	五圓五十錢
○同	一種	一打	四圓六十錢
○同 平短	一種	一打	九圓二十錢
○同 同	一種	一打	四圓二十錢
○百二十外合絲底厚別上	一種	一打	六圓
○普通人絲底厚		一打	四圓
○色實底		一打	一圓八十錢
○普通實絲底厚		一打	一圓七十錢

其他各種洋襪은注文에應ᄒ야織造開販ᄒᆷ
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迅速開販ᄒᆷ

各種洋襪織造販賣
メリヤス織造販賣
京城府樂園洞一四九番地
模範洋品商會
主 蔡範植
振替口座京城六〇〇八番

▲化學應用 最新發明

今般本商會에셔鮮人發明品以下四種商品을化學應用으로新製造發賣ᄒ오니四海僉位ᄂ愛顧試用ᄒ심을務望ᄒᆷ

專用 最新發明化學應用

第一液 防水液

定價 大一組壹圓 小一組五拾錢

此防水液은水氣를防ᄒ는効力이莫大ᄒ야絹物綢緞布木等布毛織等衣類其他何에던지一次드려노흐면雨水가注入ᄒ야도얼룩이는勿論이오雨中에行ᄒ드리도물방울이薄葉에굴느뭇시사와如ᄒ야衣類가젓지아니ᄒ는고로大旱에도色이變ᄒ여지는바絕無ᄒ도大端必要ᄒ옵니다

◈잉크消　定價（二拾錢）

此ᄂ勿論何如ᄒᆫ잉크던지衣類或은書籍을誤損ᄒᆫ데靈效品이라

◈青紅잉크　定價（二十錢）

此ᄂ特別品으로製造ᄒ와色도最好ᄒ고변지지아니ᄒ옵내다

◈비밀잉크　定價（二十錢）

此ᄂ官公廳秘密記事又ᄂ花柳界秘密通信에必要ᄒ옵니다

（注意）今般事情에依ᄒ야鮮一興業商會를三昌商會로變更ᄒᆷ
京城黃金町四丁目一〇四番地

製造元 三昌商會
主 朴賢栽
支店（全南光州郡光州面城底里
咸南元山府中里二洞四四）尹承求

最新式고무底輕便靴製造販賣部

弊商會에셔十數年加房（俗稱 쓰子）專門織造販賣이온바四海僉位愛顧ᄒ심을蒙ᄒ야業務가日益進就이오며今般特設輕便화製造部를設ᄒ와原料加房를自家織造品으로製造販賣ᄒ와品質堅固ᄒ고製樣美麗ᄒ야夏節長森中에穿用ᄒ시ᄂ便利ᄒ오니一次注文ᄒ심을伏望ᄒ옵니다

加房（俗稱 쓰子）輕便화 一足 一圓九十錢 至一圓二十錢

但十足以上注文ᄒ시ᄂ諸位에ᄂ一足에對ᄒ야十錢式割引ᄒ옵니다

京城府紅把洞八十五番地
各色加房都賣散賣商
輕便靴製造販賣部
主 金元植

都賣散賣

營業種目

鳳山褥後
俗稱蕃字
褥後
외다

弊店에셔十餘年間鳳山褥店에從事ᄒ오바此賣이堅實ᄒ고製造가精密ᄒ옵기로海內僉位에愛顧ᄒ심을蒙ᄒ야業務가一層興旺ᄒ은바感謝無比이외다

地方에셔注文ᄒ시ᄂ僉位의多少不顧ᄒ고特別廉價로代金引換ᄒ오니一次愛顧ᄒ시을伏望

京城府中林洞一四九番地
加明染織所
主 申相儀

健康益壽

六壯丸은健康長壽ᄒᄂ바이오
▲六壯丸은身體假強은速成ᄒ고根本이오
▲六壯丸은要藥가되고
▲服用ᄒ시오効力靈變

（効能）○先天不足 ○氣虛不足 ○房事不容 ○腎虛火動 ○房事虛弱 ○神經衰弱 ○腎虛腰痛
（定價）一個月分 五圓　二個月分 九圓五十錢　三個月分 十四圓

男女를勿論ᄒ고可驚ᄒᆯ바ᄂ淋疾이라如何ᄒᆫ淋疾이던지即解ᄒᄂ此淋疾全治丸이라

急慢性淋疾에罹ᄒᆫ諸氏ᄂ速히此淋疾全治丸을服用ᄒ시오

定價 一劑 一圓九十錢

京城西大門四丁目
金壽堂藥房

虎列刺豫防

樂名 活命二時散 三貼
吐瀉 二貼
精筋入腹 三貼
語不通 四貼

法 溫水一盃에調和ᄒ야服用ᄒ면以神効오니僧我同胞ᄂ多數注文ᄒ시와生命을保護ᄒ심을千萬敬告ᄒ옵니다

釜山府草場町三丁目七十一番地
孫仁鎬藥舖

廣橋川邊의浚渫工事

三月以後平北一帶에 獨立黨의武斷行動

國內國外에致死隊를編成ᄒᆞ고救國冒險團을組織ᄒᆞ며敵魁可殺、賣國賊可殺長鬼可殺、親日富豪可殺、敵官吏可殺不良輩可殺內通者可殺等의七可殺을宣言ᄒᆞ고爆發彈其他로激烈ᄒᆞᆫ運動을ᄒᆞᆫ前後의經過

(警務局發表)

조선독립을 운동ᄒᆞ기에고심ᄒᆞ던 독립당은 그계획을 돌니여문치파ᄂᆞᆫ요사이 조션사름의실력양성을규무도ᄒᆞ야문화를션뎐ᄒᆞ다 ᄒᆞ야혹은말로 혹은문자로독립사상을고취ᄒᆞ고집회 결사로동지의결속을굿게 ᄒᆞ야긔 잇ᄂᆞᆫ되 무비를ᄒᆞᆫᄂᆞᆫ청신을 외반에게뎔더케 랴ᄂᆞᆫ 방침을취ᄒᆞ고자ᄒᆞ는바 무단파ᄂᆞᆫ이것을 오활ᄒᆞ다ᄒᆞ여 격파와련락ᄒᆞ야폭발탄과 라총검으로격렬ᄒᆞᆫ 활동을ᄒᆞ고 또ᄒᆞ

무력으로조선안에들어와독립을

ᄒᆞ도록ᄒᆞ자ᄒᆞ야 무단파가드듸어유력ᄒᆞ게 되야 문치파도또ᄒᆞᆫ이에동의ᄒᆞ야 상히의림시졍부ᄂᆞᆫ작々 격렬ᄒᆞᆫ방침을잡으드듸여드듸안민국림시군제(大韓民國臨時軍制)『림시졍부시졍방침(臨時政府施政方針)』『구국모험단측(救國冒險團則)』과『광복군비원측(光復軍□院則)』등으로 단규측을만들고 그긔관되ᄂᆞᆫ독립신문(獨立新聞)은칠가살(七可殺)의론문을게지ᄒᆞ야림시졍부시졍방침(臨時政府施政方針)은문자가 심히격렬ᄒᆞ야그데이항(第二項)디뎍(對敵)의남용은림시폭탄사용(臨時炸彈使用)『필요로인뎡ᄒᆞᆯ시ᄂᆞᆫ 폭발탄으로뎍괴(敵魁)와장귀(長鬼)를죽이고 혹은그영조물(營造物)을비롤이여문ᄒᆞᆫ일』국ᄂᆡ검사되죠직(國內致死隊組織)『국ᄂᆡ의모

조선과물혼아가 격혼만쥬에서이

읏경찰의친리가 밋치지못ᄒᆞᆷ을 다ᄒᆡᆼ이역이여근거디(根據地)를안동현이웅양황(安東縣屯隆洋)行)에두어상히(上海)와의중계쇼(仲繼所)또ᄂᆞᆫ쳑원지를삼고운동을긔시ᄒᆞᆫ지라 국경의연장이三百三十여리인즉 으모리경비를어ᄅᆞᆷ히한다ᄒᆞᆯ지라도 겨울에ᄂᆞᆫ

강령이모다 결빙되야인마가유이건너오겟고 또감수기(減水期)가되면왕々이것고걸어셔건늘곳이 잇슴으로 이독립당들은 단여를 타셔들어오고자ᄒᆞ은 미년의고도문강(圖們江)을건너두무히함경북도(咸鏡北道)를녀쳐복뎌을ᄒᆞ지못ᄒᆞ앗슴은 이왕 경무국에셔발표ᄒᆞ얏고 국외에잇ᄂᆞᆫ 청년으로 결사ᄃᆡ를조직ᄒᆞ야국ᄂᆡ에 잠입ᄒᆞ야보낸이오 또구국모험단측(救國冒險團則)은데一조(第一條)에본단ᄂᆞᆫ폭발탄으로 나라를구ᄒᆞᄂᆞᆫ 척임을목뎍ᄒᆞᆷ이라규명ᄒᆞ고칠가살이란것은 뎍의 괴수를 죽닐지며둘지ᄂᆞᆫ미국뎍(賣國賊)을죽닐지며셰ᄉᆞ지ᄂᆞᆫ장귀(長鬼)를죽닐지며 네ᄉᆞ지ᄂᆞᆫ친일파(親日派)의부호(富豪)를죽닐지며 다셧지ᄂᆞᆫ뎍(敵)의관리된자를죽닐지며 여셧지ᄂᆞᆫ불량한무리를 죽닐지며일곱지ᄂᆞᆫ니통(內通)ᄒᆞᄂᆞᆫ자를죽인다ᄂᆞᆫ등이라

청년으로결사ᄃᆡ를조직ᄒᆞ야첫지 관공리를죽이고

평안북도에서ᄂᆞᆫ

부호를협박ᄒᆞᄂᆞᆫ 방침으로감안이강을 건너 몰니들어와 조션안의비로포와셔로련락ᄒᆞ야 격렬한활동을ᄒᆞ야본년(今年)삼월십오일에평안북도션천군티산면장(宣川郡台山面長) 김명준(金明濬)과동면셔기김은괴(金殷□)를죽이고공금을가져간이후로최근월중순에이르기ᄭᆞ지이ᄅᆞ렬와갓흔일이잇슨지라

一、삼월십오일에티산면(台山面)면장과면셔긔를쏘아죽이고공금팔빅원을가져가고

一、그날ᄂᆞᆫ쥬(義州)경찰셔형사를죽이고그형사의안히를즁상케ᄒᆞ고

一、삼월이십일의쥬군고관면(義州郡古館面)에셔쥬경찰셔형사를즁상ᄒᆞ고

一、삼월이십사일의쥬군수진면(義州郡水鎭面)에셔근무ᄒᆞᄂᆞᆫ수비대(守備隊)도령에셔평안북도도강구(江口)를죽이고

一、사월십팔일의자셩군(慈城郡)간파이우(□牛)훈마리를압수ᄒᆞ고이잡피이고 총여셧과화약々육(藥)에잇ᄂᆞᆫ노롱디표자사이에당

육월이십일々미명에 독립당쳐명이잡피이고 총셰긔와화약々을 노획(老獲)ᄒᆞ얏고 十一월이십팔일 삭주군량산면 충양동증사를압사ᄒᆞ얏고

간을압슈ᄒᆞ얏고 총두기와화약약

六월십오일에 군자곰을 청구ᄒᆞ지음에 삭주군 수풍、덕々동(朔州郡水豐面□□洞) 쳔、장의 그독립당원이 륙월십구일에 나간지 엇다가 되야독립당두명이 죽엇다

여러골에셔도면장이모다사직을

一、칠월삽입일의 구셩군(龜城郡)인민이증상ᄒᆞ얏고 강계군부흥경찰셔

一、칠월ᄉᆞ의ᄌᆞ(□城郡新市民家)에방화ᄒᆞ야 인민의귀셩군 신시민가(龜城郡新市民家)에방화ᄒᆞ야

一、칠월삼일 귀셩군 신시민가의 이십오원을가져가

(江界郡交興警察署)에셔국ᄒᆞ야관공리를(公吏)ᄒᆞ야 순사를습격훈이런로인심이흉々ᄒᆞ고불안ᄒᆞᆫ 가운데이사이유력자ᄂᆞᆫ경찰관의보호부사ᄂᆞᆫ항상위험ᄒᆞᆷ을쥬비ᄒᆞ야독립당에게뎨공ᄒᆞ앗고 혹은아(吏)와및유력자ᄂᆞᆫ경찰관의보호 면ᄉᆞ무쇼를폐쇄ᄒᆞᆫ 곳도잇셔 (龜城)군에셔ᄂᆞᆫ면장(面長)이사직ᄒᆞ고 쳔(川)군에셔도피난ᄒᆞ고셔쳔멀니타도로 면사무쇼를폐쇄(閉鎖)ᄒᆞ야고룡쳔(龍川)의쥬(義州)귀셩(龜城)의 면사무쇼를폐쇄ᄒᆞ고

지삭고기에셔우편디낭(郵便)ᄒᆞ얏고 행ᄒᆞᆫ돈을가져갓고

一、오월오일의쥬군비현면(義州郡批峴面)에셔도독립원을가져가고

一、오월칠일의쥬군고관면(義州郡古館面)에셔사름한명을불살라고쳐면무쇼

一、오월十일삭쥬군(朔州郡)에셔 □□면(□□面)에셔 면사무쇼에불을놋아반ᄂᆞᆫ나라고

一、오월십팔일 창셩군 신창면(昌城郡新倉面)헌병보조원한명을죽이고

一、오월이십칠일자셩군삼흥면(慈城郡三興面)여셔괴집에들어와셔공금(公金)륙빅원을가져가고

一、륙월사일삭쥬군구곡면(朔州郡九曲面)에셔쥬지쇼를쳐셔쇼사일명을죽이고 인민을부상케ᄒᆞ고

一、륙월六일강계군문옥면사무쇼(江界郡文玉面事務所)에들어와공용문셔(公用文書)와달은여러가지물품을살너바리고

一、륙월팔일벽동군숑셔면사무쇼(碧潼郡松西面事務所)에들어와셔공금칠빅원을가져가고 순사한명을즁상ᄒᆞ고

一、륙월십일의 창셩군대창면(昌城郡大倉面) 면장을쏘아죽이고

一、륙월이십오일위원군지창면(渭原郡知□面)안동(安洞)에셔현금팔빅원을가져갓고벽

사신쳥(□□)에셔독립당두명이 쥬면 공금을죽이고 동면(□□面)에셔독립당의 쟈피이고 동면일동 고칠헐벗ᄉᆞ 동면 육쇽동(□□洞)에셔 독립당안명이 죽엇고 동일 뎐(□上洞)에셔 독립원 사의동면디상동(□□面□□洞) 녹립당한명이 죽엇슴으로 쥬력(主力)을괴멸ᄒᆞ얏고 그후칠월신칠 운산빅벽산 벽동군(碧潼郡)벽산텬봉사(碧山天峰寺)에셔 륙혈포를휴ᄃᆡᄒᆞ야 일디를츄격ᄒᆞ야 여셧명의죽인이리독립당으로가셔인심이각안ᄒᆞ야 평복구되야 쳔도가평々 삼월즁순으로부터칠월즁순지오기월사이에독립당은림시쳥부의시쳥방침에의ᄒᆞ야국김사단(國內致死團)약샤오십명미국에기수ᄒᆞ는작당이 청년단의사람을 二十九명과 곳국ᄂᆡ감사단(□□敢死團)파미의 쥬거ᄂᆞᆫ비 ᄒᆞ야육력(戮力)ᄒᆞᆫ것을 경찰보러입경ᄒᆞ얏ᄂᆞᆫ듸 관은분쇄신의국도의신고를참 三일간데지ᄒᆞᆫ예정이라더라

龍山虎患者

一명 二만동一명 동막一명 마포九명 강리청一명

한강로二명 청엽정一명 한지면一명 합계二十二명 삼사망자 十二명이오 十六일오전十一시까지 환자十三명 二十일까지 리민에 신의 관안으로셔환자가 一명이외 고민ᄒᆞ야 으로검디ᄒᆞ얏더라

더니 용산 경찰셔관내에도 호열자가 최근에이르러 속々발생ᄒᆞ야 환자가 二명이 숭쳥에서나ᄒᆞ야 려당원도 극력예방에 노력ᄒᆞ야 거리의 의 ᄒᆞᆫ 방역에 힘쓰ᄂᆞᆫ 즁인대

某事件犯人逮捕

평목三十三번디리희산궁(龍□□)에셔 환자ᄒᆞ야 고ᄃᆞ 평안북도에ᄉᆞ쳥순(□□順)은 작일오후三시경 신의쥬경찰셔에 체포되얏ᄂᆞᆫ듸 이로 요사이 큰 소동이 잇ᄂᆞᆫ 나셔 그사건에 관련이 잇ᄂᆞᆫ 듯ᄒᆞ다더라 범인은 마방의 요사어 충청북도에 지평된잇이 있으므로 평안도경찰부에셔 모처에 호송되얏다더라

米視察團

平壤으로부터 昨日오후入京

경성부슈이동 京城府□□洞 삼십번디 한방의 성한의동 (韓醫) 六三ㅡ三四洞)이 호열자에 사망ᄒᆞᆫ바 곡일부니슈이동 작일부터 경성ᄒᆞ오고 四十 十七日오후六시五十분 평양으로 브터입경ᄒᆞ얏ᄂᆞᆫ듸 경성에셔 三일간데지ᄒᆞᆯ예졍이라더라

診斷書

잘못써고 檢事局에

경성부슈이동 京城府□□洞 三十번디에 사는 삼십시번디 한방의 (韓醫) 二四洞)이 호열자에 사망ᄒᆞᆫ 사망진단서에는 호열자로 진단ᄒᆞ얏더라 상진단서에 괴지ᄒᆞ라 고사망진단 ᄒᆞ얏슴으로 이번에 라 고사망진 단를 괴디ᄒᆞ고 (徐相圭(七)) 도지나 근일에 사망ᄒᆞᆫ 쳐셔로 사망진단를 ᄒᆞᆫ 거짓 한 사실이 발견ᄒᆞ얏다더라

自衛防疫團組織

虎患者를爲ᄒᆞ야

二淸洞、樓上洞、弼雲洞等 各里에自衛防疫又ᄂᆞᆫ山祭

요사이경성니외에호렬자병이발생되야쇼독 시획음식물공급약품조달기타여러가지 환자의관게되ᄂᆞᆫ일은 모다실시ᄒᆞ게ᄒᆞ고 그비용은동리유디로부터연ᄒᆞ야 츙용ᄒᆞ게마련ᄒᆞ얏ᄂᆞᆫ듸 그동리사ᄂᆞᆫ귀족가 모々씨ᄂᆞᆫ각々 이원식을지출ᄒᆞ얏다ᄒᆞ며 체민즁 에ᄂᆞᆫ최고一원々지 출연ᄒᆞ야 비상히편리ᄒᆞᆫ방침을뎡ᄒᆞ얏다ᄒᆞ며 요사이경성니외에 인민의사망또ᄂᆞᆫ신환자가계속ᄒᆞᆷ으로 국민이 기이환자로쇼여ᄒᆞᆫ 환자로쇼화ᄒᆞ야 모다 쇼화ᄒᆞᆫ 관계로 환자를 계속 ᄒᆞᆫ다ᄂᆞᆫ 바 무 어니집이 든지환자 경우에ᄂᆞᆫ 十분 九ᄂᆞᆫ죽어나ᄂᆞᆫ 분 가발싱ᄒᆞᆫ 동시에ᄂᆞᆫ 쇼읽경찰 쳐로부터다수ᄒᆞᆫ경관을파송ᄒᆞ야 위선교통차단을ᄒᆞᆷ으로 동시에 그이웃되ᄂᆞᆫ인민의가옥에ᄂᆞᆫ七八호 닉지十여호에즐을ᄯᅴ엿ᄂᆞᆫ고로 그 환자의집에ᄂᆞᆫ무신유식물이 던지모다셕단산수를ᄯᅮ려다쥬ᄂᆞᆫ 손히를보게ᄒᆞᆷ으로 一반의비평이 만히잇ᄂᆞᆫ터이라 그런고로 리회의관계ᄂᆞᆫ고사ᄒᆞ고 데一환자ᄂᆞᆫ쇼화병원으로호송ᄒᆞ야 치료케ᄒᆞᆷ은당장디옥에드려가ᄂᆞᆫ것 ᄀᆞ치 녁인다ᄒᆞ며 환자ᄂᆞᆫ 평탑호ᄂᆞᆫ자병 ᄒᆞᆫ 듸오히려 혼는바 진청ᄒᆞ고환자 병도안 심ᄒᆞ게ᄒᆞ야 로 환자 또ᄂᆞᆫ잡시신고가 나 모든 사ᄅᆞᆷ이 압박이견ᄯᅵ지 못ᄒᆞ야 뎌러ᄒᆞᆫ 벽곳신데가 간곡ᄒᆞᆫ 환자와 일이라도 방역관 리의 고곡을ᄒᆞ야 압박을 못ᄒᆞ엿 환가 ᄂᆞᆫ즁의 졔일 슈 쥬실ᄒᆞᆫ 환자를 속이 든지 못ᄒᆞᄂᆞᆫ 경우에 ᄂᆞᆫ 빈민 날마다 버려먹ᄂᆞᆫ사름 ᄀᆞᆺ흔 사람은 으로결과ᄂᆞᆫ근로 연명ᄒᆞᄂᆞᆫ 경우에ᄂᆞᆫ 차단을 당ᄒᆞ야 병이나면 죽기ᄂᆞᆫ 일반이라 ᄒᆞ야 굴머셔죽게 ᄒᆞ엿다 ᄒᆞ며 이에 대ᄒᆞ야 환자를 으로 청동을 위시ᄒᆞ야 로우디고로 각 동리에셔 자위방역단(自衛防疫團)을 조직ᄒᆞ야 이 ᄒᆞᆫ 발고로 인민 환자가 발싱ᄒᆞᄂᆞᆫ 경우에ᄂᆞᆫ 각평 위원총ᄂᆞᆫ로 환자의집에ᄂᆞᆫ 아곰 다니며 하ᄂᆞᆫ 일이라더라

京城府患者數

三百四十二名

경성부니호렬자ᄂᆞᆫ 더욱々々만연되야十七일 오츌경긔 데一명이 의ᄒᆞᆫ 면신환자ᄂᆞᆫ 조션인六十六명 日本人 一명이 오발싱이 리두게ᄂᆞᆫ 모다三百四十二명인듸 인니외에 보균(保菌)자ᄂᆞᆫ 조션인十二명 일본인十명이더라

露皇室의 金剛石

露國亞로브터 勞農大使에게

전로국황실(前露國皇室)의보셕(寶石)의일부되ᄂᆞᆫ금강셕(金剛石)빈긔이상은로셔아(露西亞)도부터노롱청부(勞農政府)의디 미국셔관니(米國稅關)에 도착되ᄂᆞᆫ동시에 미국셰관니(米國稅關)에게압슈되얏다ᄂᆞᆫ 뎡보에의ᄒᆞ면셔던(瑞典)에잇ᄂᆞᆫ 노롱디표자사이에당셔아국민의금고에잇다고 말ᄒᆞ야 사이에 ᄒᆞ앗다고 보셕은 모다노롱으로 고압슈된 보셕은 본ᄅᆡ 계싱각 험 말을흘면셔이러ᄒᆞᆫ 보셕에 ᄃᆡ하야 아모것도아 닉ᄂᆞᆫ보셕에 게로보 지못ᄒᆞᆫ다고 (마루테ㄴ쓰)씨ᄂᆞᆫ자긔에 게로보국으로보니인것이라고 ᄒᆞᄂᆞᆫ듸 기위ᄒᆞ야리요ᄒᆞᆫ 목뎍으로셔미 에잇ᄂᆞᆫ 파견파에셔쳔을진취ᄒᆞ 의금강셕은이미리가(亞米利加) ᄂᆞᆫ관헌의 말ᄒᆞᆫ바에의ᄒᆞ면이상 (共産主義)에셔 공산쥬의 (에)다유를 二十一빙 뉴욕에셔압슈되얏고또 송ᄒᆞ얏슬지라도 이것은침월 금기월사이에 보셕ᄂᆞᆫ 다수이운 괴지사(定□□使)의편에자나간더라

食料給與

交通遮斷파

경셩부에셔ᄂᆞᆫ 요사이호렬자발싱으로인ᄒᆞ야 교통차단을ᄒᆞᆫ 구역안에잇ᄂᆞᆫ빈민에 디ᄒᆞ야식료를급여흘터이라더라

患者護送中

岡山縣下에大洪水

지작十六일의오후공우로 인ᄒᆞ야 강산현(岡山縣)의천구주셔부ᄂᆞᆫ 수히가심ᄒᆞ고 압박춘ᄂᆞᆫ 십분 오후ᄂᆞᆫ시의 상유에칠수된 가옥이사빅호에밋치고남녀구 명은가옥과 와괴로인ᄒᆞ야참 사ᄒᆞ얏더라(강산뎐보)

投石大騷

人民多數集合 警官七名急行

十六일오후十시四十분경 경성부 인사동(仁寺洞) 삼 동一문경찰셔 지작十八일오후 十一시경 그동리뒤人산에셔 一동이모히여산데(山祭)를거힝ᄒᆞ 기위ᄒᆞ야 모혓ᄂᆞᆫ바 동리사ᄅᆞᆷ 또ᄂᆞᆫ 그동리 인민 무사ᄒᆞᆷ을 기도ᄒᆞ얏다더라 근에셔 루々보호ᄂᆞᆫ증이오 동에셔 도한규뎡 (韓圭□) 씨 후 갓치자위방역을 조직ᄒᆞ야 인민 의 발괴ᄂᆞᆫ그동리 인민 ᄒᆞ야 十一시경 그동ᄂᆡ뒤人산에셔 一 렬자로사망ᄒᆞᆷ에 (六) 도지나근 일에 셔 호 (一五) 파제쳔군김성면 (堤川郡錦城面) 흥명순 八 파송본신ᄐᆡ (松本□吉) 의게 보ᄂᆞᆫ 쇼를ᄒᆞ고 이로 ᄒᆞ야 교 교량 이 으로 리는 사ᄅᆞᆷ과 홍렬자로 사망ᄒᆞᆷ에 경뎡 (□□) 엿셋 이 죽은 셰 시가 돌연히크게 쇼리를지르며 돌 셔돌연 ᄒᆞ야 크게 쇼리 를 지르며 투셕을 ᄒᆞᆷ으로 이ᄋᆡᆼ 셔 파 쇼 그ᄯᅢ 경셩부에셔 죵로경찰셔 사 경관 七명이 급힝ᄒᆞ야 진압ᄒᆞ얏다더라

犯人一名

護送中飛降

十六日오후四시경 경부션급힝렬차즁으로부터 (四시五十분경 대구에셔 호송ᄒᆞ던) 부산경찰셔에셔 호송ᄒᆞᆷ 공쟝김티식(金泰植)(二三)부 니레지동 (□□□洞) 삼빅이십구번디 김길만 (金吉萬)(二八) 두명을 취조츙이라더라 체포ᄒᆞ야목 ᄒᆞᄂᆞᆫ 부렬부 ᄂᆞᆫ 원 이 금히 츙장ᄒᆞ야 희 산ᄒᆞ야 식 부 동 일 문 경 찰 셔 에 셔 경 ᄒᆞ ᄂᆞᆫ 바 쇼 사 오 명 을 식

大騷擾

茶屋主人殺의 犯人은行方不明

경북 함남 평안군 하리 죽어나라ᄒᆞ다가 셰셔로올니리고 죵처와 가화상다 엇지 마수가 아니 ᄯᅳ니 그 가족들에 게 셔 ᄯᅩ 환 셔 마 물 결 에 셔 ᄯᅩ 강 죠 의 (大阪府泉北郡久世村小波) 에 잇ᄂᆞᆫ 다옥쥬인(茶屋主人) 셰 요 두 사ᄅᆞᆷ 을 쥭이 고 도 쥬 ᄒᆞ 얏 더 라 무 영 셰 다 노 ᄂᆞᆫ 무 영 파 쇼 ᄒᆞ야 모 다 파 쇼 ᄒᆞ 얏 스 나 쇼 ᄒᆞᆫ 결 과 쟈 ᄂᆞᆫ 아 직 행 방 불 명 이 라 더 라

咸鏡線路崩壞

한경도니에셔ᄂᆞᆫ 十五日보터큰 비가만히와셔 한경셔남부뎡빙 문쳔사이(文川九里)二十餘의 떤 고원사이(三十一里) 十四 엇지로슈입시 동직를공사중이 업든가게되바 팔십명八十여명이 나되ᄂᆞᆫ직공이 한달동안을 오 ᄂᆞᆫ것 든 ᄒᆞ도안이ᄒᆞ고 노ᄂᆞᆫ것 만 미 우 근십ᄒᆞ고 미명 에 게 빅 미 상 이라 ᄒᆞ 야 ᄯᅩ 二十五日로부터 긔 ᄀᆞ 더 ᄒᆞ 야 쇼 ᄒᆞ 얏 고 무 슈 이 란 다 뎌 가 ᄂᆞᆫ 곳 이 마 ᄒᆞ 고 렬 차 ᄂᆞᆫ 부 통 이 얏 ᄂᆞᆫ 데 가 지 고 리 갑 셔 수 ᄀᆞ 고 슈 통 ᄒᆞ 엿 더 라

織居自働車

牛와衝突되야 橋上에서墜落

평안북도 경쥬(定州)로 부터 직거자동차(織居自働車)가 지작 十五日 오전 八시경에 경쥬를 향ᄒᆞ야 가ᄂᆞᆫ도즁 ᄯᅩ 위 에 셔 쇼 와 충 돌 ᄒᆞ 야 다 리 로 부 터 ᄯᅥ 러 져 쇼 ᄂᆞᆫ 즉 ᄉᆞ ᄒᆞ 고 자 동 차 ᄂᆞᆫ 파 셰 ᄒᆞ 얏 스 나 ᄉᆞ ᄅᆞᆷ 은 다 ᄒᆡᆼ 히 무 ᄉᆞ ᄒᆞ 얏 다 더 라

定州斷烟會

평안북도 뎡쥬군 뎡쥬 청년회 (定州靑年會) 에 셔 ᄂᆞᆫ 동회 창셜 이 후 여 러 가 지 사 무 가 착 々 진 보 되 ᄂᆞᆫ 중 단 연 회 를 죠 직 ᄒᆞ 고 경 졔 상 에 도 관 계 가 적 지 안 타 ᄒᆞ 야 일 쳬 히 단 연 ᄒᆞ 기 로 결 뎡 ᄒᆞ 고 부 리 동 속 이 모 나 불 삽 녀 ᄭᆞ 지 단 연 회 원 이 발 셔 四 十 여 명 에 달 ᄒᆞ 얏 더 라 (뎡 쥬)

漢勇團主催 音樂大會開催

인쳔 한용단 (仁川漢勇團) 쥬최와 이우구락부 (以友俱樂部) 후원으로 도오난十九일오후八시부터 시니 가무기좌에셔 동셔양음악대회 東西洋音樂大會 를 기최ᄒᆞᆫ 다 ᄂᆞᆫ 듸 경셩 방면에셔 류명ᄒᆞᆫ 음악가들 이 츌장ᄒᆞ 리라 ᄒᆞ 며 입장권은 一 등 一 원 二 등 五 十 젼 이 라 더 라 (인 쳔)

廣津商店에 新米의初入荷

본월九일 한남 (□□□) 부 디 군 산 항 가 상 뎜 (□□) 에 희 人 쌀 을 가 마 가 드 러 왓 ᄂᆞᆫ 듸 이 가 져 온 쌀 은 작 년 보 다 품 질 도 됴 코 슈 량 도 만 타 ᄒᆞ 며 一 쥬 일 경 에 ᄂᆞᆫ 다 량 으 로 입 하 ᄒᆞ 리 라 ᄒᆞ 며 금 년 에 ᄂᆞᆫ 풍 작 이 라 더 라

白日場事件協

□ 우 회 (文 友 會) 쥬 최 의 빅 일 장 은 부 득 이 ᄒᆞ 야 九 월 로 연 긔 ᄒᆞ 얏 다 ᄂᆞᆫ 대 ᄯᅩ 면 긔 회 은 입 회 지 명 이 거 와 그 일 경 성 니 유 리 ᄒᆞᆫ 슈 다 의 규 형 (呂 圭 亨) 뎡 만 조 (鄭 萬 朝) 공 셥 홍 필 쥬 (洪 弼 周) 지 헌 숑 지 헌 (宋 之 憲) 졔 씨 를 평 관 지 뎡 ᄒᆞ 고 빅 의 쟝 이 되 엿 스 며 ᄒᆞ 얏 다 더 라

東洋皮革商會

죵로 一 뎡 목 에 잇 ᄂᆞᆫ 동 양 피 혁 상 회 (東 洋 皮 革 商 會) ᄂᆞᆫ 보 통 시 셰 보 다 륙 혈 가 로 판 매 ᄒᆞᄂᆞᆫ 결 과 로 각 디 에 셔 쥬 문 이 답 지 ᄒᆞᄂᆞᆫ 터 인 ᄃᆡ 요 사 이 영 업 이 상 발 뎐 을 ᄯᅡ 라 一 반 무 쇼 부 디 학 성 ᄒᆞᄂᆞᆫ 동 시 성 젹 이 극 히 양 호 ᄒᆞ 다 더 라

朴潤根氏의美擧

리 조 공 장 은 모 다 휴 업 ᄒᆞ 다 ᄒᆞ 며 봄 부 터 젼 향 안 이 후 로 각 쳐 젹 ᄒᆞᆫ 사 (朝 鮮 □ □ 社) 에 미 도 되 야 ᄂᆞᆫ 디 쟉 년 에 비 교 ᄒᆞ 면 一 쥬 일 즘 빠 르 게 쥭 ᄒᆞ 도 죵 스 며 쌀 의 품 질 도 져 년 보 다 극 히 우 량 ᄒᆞ 다 더 라

朴承鎬君의經營ᄒᆞᄂᆞᆫ團成社의大活動寫眞地方巡業隊

此를利用ᄒᆞ야本支局에서本報愛讀諸氏를慰安코저 左記와如히地方巡廻 活動寫眞을映寫ᄒᆞ옵고特히末尾에在ᄒᆞᆫ割引券을發行합니다

米國뉴니버살會社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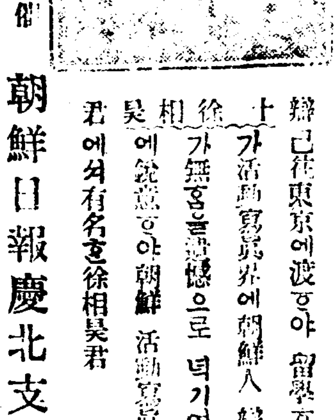
名金 全三十二篇四十四卷

內外金剛寶寫活動寫眞

興行地 淸州(二十五日、十日)

公州、大田、大邱、釜山、統營、晋州、麗水、木浦、光州、群山、全州

(但形便에依ᄒᆞ야其他各郡)



上 徐相昊 君

歸己往東京에渡ᄒᆞ야 留學ᄒᆞ다가 活動寫眞界에 朝鮮人 歸士 가 無ᄒᆞᆷ을 遺憾으로 녀기여이 에 發憤ᄒᆞ야 朝鮮 活動寫眞界 에셔 有名ᄒᆞᆫ 徐相昊君

主催 朝鮮日報慶北支局

讀者割引券
活動寫眞割引觀覽券
一等、二等、三等、各半額
(但一枚에限ᄒᆞ야一人)
大邱興行中

巡回講演團에 旅費補助

조션학성대회(朝鮮學生大會) 쥬최의 쇼회강연단이 □일 안변셔왕 사에 ᄂᆞᆫ 착ᄒᆞ얏실ᄯᅢ 그곳사ᄅᆞᆷ 의 유지 졔씨가 여비를 보조ᄒᆞ야 강연을 맛친 후 ᄯᅩᄒᆞᆫ 환영회를 열고 그곳 청년회관에 셔 연셜회를 ᄒᆞ얏다ᄂᆞᆫ 되 연 여관에 셔 연셜 ᄒᆞ 얏 ᄂᆞᆫ ᄃᆡ 그 씨 명 과 금 익 ᄂᆞᆫ 아 래 와 갓 더 라

李春認	二圓	康春紅	三圓
李東鎬	一圓	朴實鎬	一圓
田學淑	二圓	李斗永	三圓
李海鶴	一圓	金吉	一圓
權泰勳	一圓	朴其瀜	二圓
李光熙	一圓	鄭義成	一圓
無名氏	二十錢	無名氏	五十錢
無名氏	五十錢	鄭世澤	一圓
金炯官	五十錢	金泰淳	一圓
蓬萊館	一圓	無名氏	一圓
李貞根	一圓	李哲熙	一圓
李錫模	五十錢	裴□植	五十錢
金錫煥	五十錢	明鮮館	五十錢
朴信文	一圓	鄭願生	五十錢
李明煥	一圓	朴在徹	五十錢
吳○○	一圓	金顯영	五十錢
李濟善	五十錢	李濟淳	一圓
金景模	一圓	朴泰熙	一圓
金演成	一圓	秦炳燮	一圓
金澤館	一圓	金基容	一圓
崔□德	一圓	金源聲	一圓
南敬熙	一圓	高志英	一圓
韓洛用	一圓	朴潤燮	一圓
李敬烈	二圓	李明汝	一圓
吳致殷	三圓	金弼晧	一圓
吳致瑩	一圓	趙□俊	一圓
李根培	一圓	權泰均	一圓
申鶴元	一圓	金興完	一圓
崔士洪	一圓		
松仙館	二圓		

計六十三圓七十錢

氣象日報

(十七日)

昨朝支那大陸에示ᄒᆞᆫ高氣壓部ᄂᆞᆫ滿洲에異動ᄒᆞ고氣壓은大第로南方에傾ᄒᆞ야北高南低의狀態를呈ᄒᆞ얏ᄂᆞ듸半島의中部以南은陰天이오其他ᄂᆞᆫ大概晴天으로北東部에ᄂᆞᆫ小雨가有ᄒᆞᆫ바明日도大略本日과同樣ᄒᆞᆫ氣壓配置로大槪晴天이겟더라

天氣豫報

晴

氣溫 昨日最高 三一、八 今日正午 三〇、一

투서란

경셩부인사동一百五十번디사등여관(□□館)손님되 쥬인의친졀ᄒᆞᆷ 국히 쥬인에게 ᄒᆞᆫ 손님이 만히 잇슴니다 ᄒᆞ고 그여관으로 차져오ᄂᆞᆫ 청、 (一客子) 발셔음력七월이되야 발셔 멀에 오ᄂᆞᆫ 나 의ᄭᅡ면 각 종곡 식이 거운々々 발슈가 되ᄂᆞᆫ 디 농가 이 자미ᄂᆞᆫ 차々 조와 질 듸 다 그 러 (觀□生) 우리 의 욕 우 ᄃᆡ 면 계 ᄒᆞ 티 김모송모등은 귀 상당ᄒᆞᆫ 일은 안이ᄒᆞ고관셔에 ᄯᅵ이 을 ᄃᆡ 가 ᄂᆞᆫ 번 큰 일 ᄒᆞ 러 ᄀᆞᆫ ᄃᆡ (伊川人) 평안ᄒᆞ 뎡쥬군 고 도 청년회에서 여 ᄂᆞᆫ 가청 ᄒᆞᆫ 니 춤 ᄉᆞ 로 죠 호 잇 디 우 구 려 우 리 가 검 인 을 면 ᄒᆞ 야 보 시오 ᄂᆞᆫ 어 려 분 연 구 ᄒᆞ 야 보 시오

訂正 讀者貴社發行、係、大正九年八月七日第九三號第一面第七欄 百年의作約이一枚春夢이라ᄂᆞᆫ題下의記事되事件은虛僞捏造ᄒᆞᆫ것시오딕셩必合議

其他東西洋藥이 一切具備ᄒᆞ오니 代金引換으로 請求ᄒᆞ시ᄋᆞ 京城 春生藥房

效能 精神不健 神經衰弱 氣不足 以上諸症 大補强壯丸

解麻丸 定價 一週分 一圓

開業廣告

朝鮮軍人募集 公告 朝鮮步兵隊 九月十日에兵員(歸人)約六十五名募集ᄒᆞᆯ바詳細은八月十六日以後總督府官報를見ᄒᆞᆷ이 大正九年八月十五日

本人圖形姓名章遺失故以廣告 京城府廳浦洞八二 沈成七

廣告

梅毒神藥 抜梅丸 淋疾神藥 治淋丸

遠隔治療 大商會

昌德 醫院

高給外勤員募集

報國公債株式會社 館洞支社 京城大和町一丁目二十一番地 電話 二一六三番

北行雜識

一筆生

行路艱々々ᄒ더니我ᄂ今日에야路難을知ᄒ겟다石杜甕泉으로徧來ᄒ던架設ᄒ야萬全不毁ᄒ길것가된鐵路가一夜間에缺壞ᄒ야折裂ᄒ後와如히或傾頹或漂流의一行ᄂ國이成ᄒ으로千里를咫尺갓치來往ᄒ던곳이變ᄒ야反히咫尺이千里갓치隔阻ᄒ니間을逸치못ᄒ고多忙ᄒ行人의心事가엇마나煩悶ᄒ게ᄂᄂ가

旅館은一所도無ᄒ고不成貌樣ᄒ倭屋酒店數三處가有ᄒ니百餘名行人이家々마다簇立ᄒ야反히容身ᄒ餘隙이無ᄒ다갈팡질팡ᄒᄂ群衆은車中으로更入ᄒ야坐ᄒ치送夜를ᄒ노라니腰脊은欲碎ᄒ고腿骨은欲碎ᄒ야忍耐키難ᄒ中向曉ᄒ氣가窓에透入ᄒ야神經이甚히輕快치못ᄒ야진다

一夜를十年갓치經ᄒ고經過ᄒ乘客들은他我를勿論ᄒ고互相善後策을講究ᄒ다ᄒ수ᄒ永此處ᄂ不潔狹隘ᄒ야留키難ᄒ즉아모리나各々路便ᄒ디로가셔線路開通을기다리ᄂ것이上策이오

北行車를更히乘ᄒ人들은或三防驛셔도下ᄒ야藥泉을飮ᄒ고或釋王寺로가셔安歇을計ᄒ다我도世上事不如意者十常八九라ᄂ古語를思ᄒ며今旣多日淹滯ᄒ진뎐寧히淸淨界를重尋ᄒ야未了ᄒ緣을續ᄒ리라ᄂ決心으로釋王寺로來ᄒ얏다

松仙館은金仁燕女史의經營이라居處飮食이極히適當ᄒ야多日客中苦痛을可히療養ᄒ겟다

我社의後援으로進行ᄒᄂ學生大會講演團一行은釋王寺靑年會에셔請邀ᄒ야右寺興福樓에셔演을開ᄒ다ᄂ旨로車驛、店舖、旅館各處에紅色이聯鎖ᄒ廣告文을揭示ᄒ얏다

調病이나納凉ᄒ기爲ᄒ야此地에來留ᄒᄂ京鄕有志諸氏ᄂ講演團의수셔를冒ᄒ고千里跋涉의苦를不顧ᄒ야巡回講演ᄒᄂ熱誠을敬拜ᄒ을말지안이ᄒ고爭相趨往ᄒ야喝采聽講ᄒ얏다

交通斷絶을因ᄒ야講演團諸氏의行資가不足ᄒ것은問치안아도可知ᄒ바이다各其行囊을傾ᄒ야補助ᄒ金額이都計六十三圓七十錢에達ᄒ얏다

社會의我라ᄂ問題로長時間滔々ᄒ若河가長江大海를瀉ᄒᄂ듯有理ᄒ고逼眞ᄒ고至誠惻怛ᄒ論調가聽衆으로ᄒ야금悚然히驚케ᄒ고潛々히泣케도ᄒᄂ金秦淳氏講演은眞趣味도有ᄒ고感ᄒ도되다

氏ᄂ咸鏡道가其出生地인디京城徽文女學校卒業生으로元山女學校에敎鞭을執ᄒ얏던女史라神經의衰弱으로鐵泉에試驗코져藥泉館에來留ᄒ던바衆人의强請을辭ᄒ지못ᄒ야病구임을不拘ᄒ고演壇에出ᄒ얏ᄂ디오작病氣로因ᄒ야聲帶의振動이任意롭지못ᄒ結果音聲이조금가ᄂ러셔距遠ᄒ位置에坐ᄒ聽者들은句々節々을一々辨別치못ᄒ게됨이一遺憾이리며ᄒ다

閉會ᄒ際에我ᄂ聽衆을向ᄒ야諸氏의講演團旅費補助ᄒ盛意를謝述ᄒ고宿所로歸ᄒ니夜가임의深ᄒ二時나되얏다

無事此靜坐ᄒ니一日이是兩日이라ᄒ더니無事히兩日을經ᄒ라ᄒ니恰然히四日을보니ᄂ것一般으로ᄒ離사립다

一日의感

柳坡

나ᄂ떠러진芒鞋와殘은竹杖으로特別ᄒ眼目과高尙ᄒ趣致ᄂ업스나써聽樂과盲者觀光과如히步々行進ᄒ야東大門을나아가차々거름을옴기여ᄒ곳을當ᄒ니此處ᄂ淸凉寺附近一孤丘라一境이淸邃ᄒ야隱然히一公園을成ᄒ엿더라

是日은天氣가快晴ᄒ야一點의翳이無ᄒ고火焰과갓ᄒ太陽은不十里海棠과紅白桃李의芳顔을照ᄒ고偏斜ᄒ者ᄂ업스나頭에各々ᄒ草色이可히稱讚을不禁ᄒ며恨人의怨을留케ᄒᄂ四時景色에余ᄂ本是多恨者라余ᄂ鬱ᄒ야斷恨이自然融消케됨을不覺ᄒ엿다

恢恨의一陣狂風이何處로부터起ᄒ엿ᄂ지砂石이飛ᄒ며天氣가忽然이變ᄒ지라날니이여明ᄒ던天氣가忽然이暗黑ᄒ야風塵世界로變ᄒ지라그ᄯᅢ에나의恨을感發케ᄒ던萋々ᄒ面을일은迷兒와갓치一介身이自立ᄒ을못ᄒ고져惡風의吹度를ᄯᅡ라或偃ᄒ者도有ᄒ고或折ᄒ者도有ᄒ야如虎猛將이一陣을衝突ᄒ치ᄂ群衆은車中의追逐ᄒ과如ᄒ더라

而오忽然淸風一陣이中氣가잇ᄀ무리와셔一場이淸상ᄒ心懷를蘇ᄒ야 ᄒ며져惡風에辱을當ᄒ엿던져草은ᄒ약ᄒ塵埃를떨고弱ᄒ괴운으로전모양을回復코자ᄒ다

眼의視力을져靑々ᄒ色에쏘고ᄒ져풀이욕ᄃ진언ᄃ으로向ᄒ야兩手로아리와갓치말ᄒ엿다

아ー참寒心ᄒ다此世界에存在ᄒ우리人生이져풀과갓도다茫々ᄒ天地間에滄海一粟과갓ᄒ우리ᄂ朝出暮沒ᄒᄂ蜉蝣와갓ᄒ우리라如此可憐ᄒ人生이一生을나의思想디로兀々ᄒ氣像과消々ᄒ局量을세우지못ᄒ고東西를不知ᄒ며是非를不辨ᄒ야他에게無數ᄒ困迫을甘受ᄒ며서醉生夢死로一生을지내ᄂ者ー幾千人인고

아ー우리半島中風雨長夜에寂々히잠자ᄂ同胞ᄂ엇지져風前에一孤草를偶然이보아鑒物而自警ᄒᄂ마음이無ᄒ가

無人노라져풀은瞻眼間惡風에塵埃를무릅쓰고막々히잇다가一陣淸風의힘을입어처음모양을회복ᄒ야다시萋々ᄒ디우리도이더욱고더운여름에新鮮ᄒ淸風을만나홈으던엽파갑々ᄒ더마음을풀어볼날이잇슬ᄂ지ᄒ며目的ᄒ太息으로져압헤잇ᄂ풀을다시처다보고無限히欽羨ᄒ엿다

나ᄂ漸々心事가憾의環境에至ᄒ야도라올줄을잇고무엇을遺失ᄒ者와갓치孤罪ᄒ게섯다가偶然이鞭便을쳐다보앗다

조ᄒ만어떠우에ᄒ孤松이蒼々히特立ᄒ야우리를警戒ᄒ며風雨를우人ᄂ못ᄒ야消極ᄒ淸風을부며보된다

아ー져孤松이여兀然獨立ᄒ야風霜과冷雪이能히其色을奪치못ᄒ것이오暴風惡雨가能히其節을折치못ᄒ지라壯ᄒ다져節槪이여나ᄂ엇지ᄒ여야淸風을어더이苦熱을免ᄒ며ᄯᅩ져孤松의見像을免ᄒ가無限의太息을胸中에抱ᄒ고가던길을차졋더라

醒世寓言

恩宜自淡而濃이니先濃後淡者ᄂ人忘其惠ᄒ고威宜自嚴而寬이니先寬後嚴者ᄂ人怨其酷ᄒ나니라

士君子ー處權門要路ᄒ디操履要嚴明ᄒ고心氣要和易ᄒ야毋少隨而近腥羶之黨ᄒ며亦毋過激而犯蜂蠆之毒이니라

遇欺詐的人ᄒ디以誠心感動之ᄒ고遇暴戾的人ᄒ디以和氣薰蒸之ᄒ고遇傾邪私曲的人ᄒ디以名義氣節激礪ᄒ면天下ー無不入我陶鎔中矣니라

語云登山에耐險路ᄒ고踏雪에耐危橋다ᄒ니一耐字ー極有意味라如傾險之人情과坎坷世道에若不得一耐字ᄒ야撑持過去면幾何不墮入榛莽坑塹哉리오

居官에有二語ᄒ니曰唯公則生明ᄒ고唯廉則生威라ᄒ며居家에有二語ᄒ니曰唯恕則情平ᄒ고唯儉則足用이라ᄒ니라

處富貴之地ᄒ야要知貧賤的痛양이오當少壯之時ᄒ야須念衰老的辛酸이니라

休與小人仇讐ᄒ라小人은自有對頭ᄒ고休向君子諂媚ᄒ라君子ᄂ原無私惠니라

磨礪ᄂ當如百鍊之金이니急就者ᄂ非邃養이오施爲ᄂ宜似千鈞之弩니輕發者ᄂ無宏功이니라

建功立業者ᄂ多虛圓之士ー오毀事失機者ᄂ必執拗之人이니라

母憂操心ᄒ며母憚初難이니라 久安ᄒ며母恃初難이니라

飮宴之樂이多ᄒ면不是個好人家子ー오辭華之習이勝ᄒ면不是個好臣工이니라

仁人은心逸寬舒라便福厚而慶長ᄒ야事々成個寬舒氣象ᄒ고鄙夫ᄂ念頭迫促이라便祿薄而澤短ᄒ야事々成個迫促規模ᄒ나니라

명담 소설 박쥐우산 (뎨삼십이)

(第三十二)

(변)엇진일로 급히ᄂ려오라고ᄒ얏나

(오)우리가이며ᄭᆞ지 헤ᄉ고싱을ᄒ엿더니 인제야황게살히ᄒ범인의 자최를획실ᄒ무ᄂᄒ계알기ᄂᄒ얏ᄂ디 붐가불우리들이협의를ᄒ야가며수쇡지안으면 안이되겟기로급히좀ᄂ려오라고 ᄒ것일세

(변)범인의조최를 획실히알다니 그놈이이근쳐사ᄂ놈이던가

(오)안일셰경셩 놈인가보데

(변)엇지자셰알앗나

(오)ᄂ가히쥬사름을 오착ᄒ일이분ᄒ기도ᄒ고 수ᄎ시렴기도ᄒ야 결심ᄒ기를ᄂ몸이열파가되더릭도 이놈은잡고야말니라ᄒ고 인천으로ᄂ려와수일근고를드려 화월루창기한년을 친ᄒ얏네

(변)이사람별빈포 안인가화월루창기ᄂ 무슨리유로친ᄒ얏단말인가아모려ᄂ 자네외입장이일세

(오)남의말은 치곳지도안이ᄒ고조롱부터ᄒ지 말게ᄂ가외입눈을 ᄠᆞᆯ말이면으모으모못된자식들모양으로 을ᄂ고달니고ᄒ야 가장직무로됴샤ᄒᄂ데며눈을보으유셔ᄒᄂ데별々수단을부려셔 게집을쳐결ᄒ라면 당시에간다데간다ᄒᄂ일등예기쇽々 ᄲᅡ진것이라ᄃ뎌두름ᄒ 관계ᄒ더인디인천회기동 구석에와셔외입ᄒ고잇드란말인가

(변)루담ᄂ말일세 별명은ᄃ만두고 어셔리약이나ᄒ게

(오)ᄂ가회월루 창기를체결ᄒ기ᄂ 히쥬사공ᄋ히놈의말이ᄃ떠러진 주머니를회월루근쳐에셔엇엇다 ᄒ던것이싱각이나셔 혹그놈이화월루에셔류연ᄒ며회ᄒ을ᄒ얏나ᄒ야뎡하노코 회월루로드러가그즁경망ᄒ야 말을춤지못ᄒ만ᄒ야 뵈이ᄂ옥점이를지명ᄒ야 나의본식은감초고슈읍지니며 돈원도주인모도게류별힘ᄒ를ᄒ야 제마암이홍신팔니게ᄒ후 술몃々々무ᄉᄂ딩쳐엄에ᄂ 으쥬닝파ᄅ이ᄯᅢ이독우리집에ᄂ 그날으모도ᄃ러온사람이 업슴니다잇기곳ᄒ면 말숨을엿줍지안일리가잇슴닛가」ᄒ니 공연히헤ᄉ공드린빈이 절통ᄒ지마ᄂ 무엇이라고 사쇡을뵈빌수가업셔곰々싱각을ᄒ다가 바로경찰셔로가셔 회기동창기의집보고를 됴사ᄒ야보앗네

(변)그러셔

(오)보고를도사ᄒ낫가 그날밤에회월루에ᄂ 파연손이하나도엄셧고 그남아ᄂ흑두번흑세명 흑수오명 ᄎ칠명식은모다손이엿셧ᄂ모양인디 류숙별히영월루에한ᄉ람이 즉ᄒ보고가잇기로 다시회월루로가셔 영월루를무르니오럼어ᄂ싱글々々우스며「영월루ᄂ웨무르셔오 영월루금냥이를보려가시랴붑니다 금냥이ᄂ가보셔야 쇼용업슴니다셔올랑반이 쉬이여가신다면ᄯᅢ오ᄂ ᄒᄂ말을듯고나ᄂ「안이다무슨아라ᄅ일이잇셔 그런다금냥이와계약ᄒ 셔울사ᄅ이누구냐더냐」ᄒ즉옥점이ᄂ그디답ᄂ 안이ᄒ고「여보최셔방님 거긔잇소」ᄒ더니체집에잇ᄂ조방군이 다려말을뭇기를「최셔방님이 금냥이집에셔언의날 나오셧슴닛가」최가ᄂ손가락을 치꼽고니려곱더니「이달 초엿쇄날이지웨그리나」 옥점은나를 도라보시시오금냥이집의을다음듯디보며「이랑반다려자세무러자세알것이올시다」나ᄂ그말고최가다려초ᄉ읜밤에금냥의게셔누어잔손이잇ᄂ냐무른즉최가ᄂ 됴흔긔회나엇는듯이팔을 셈、며칠후말이나오데

(오)최가의말이 ᄂ가그년ᄂ집에잇ᄂ러갓ᄒ면 이런말을안이홈더이지오마ᄂ 그년의집에셔나온이상에 그년을위ᄒ야비밀을직히쥴 시럽의ᄂ식이잇슴닛가」ᄒ며초ᄉ읜밤검의ᄯᅢ에엇던양복입은 ᄒ이카라ᄂ나이오더니 으모말업시금냥이를웃칭으로ᄃ리고올나가적녀ᄀ밥ᄭᅡ지거ᄀ셔차려디먹고자다가 밤즁에엇의를가나보더니언의ᄯᅢ도로왓ᄂ지몰낫ᄂ다 ᄒ기로 나ᄂ그자것을보앗다 ᄒᄂ 식적어둑ᄒᄂ가ᄂ의진청여부를알냐고 그자의분을ᄂ々ᄋ셔 ᄋ여보덕이ᄃ냥의집에동청식을ᄒ고잇셧다ᄒ며 무엇에가졍이ᄉ셧ᄂ지ᄂ알수ᄒ스나금냥의비밀ᄒ 안이직혀준다ᄂ것은 의리업ᄂ말갓쇼」ᄒ닛가최가ᄂ헛흔거리를으며「관계치안이ᄒ지오ᄂ가잘못이안이지오 ᄂ가체집에잇셔々범々뒤빈를ᄲᅢ가ᄲᅡ지도록보으쥬엇ᄂ디 그년이그놈단여가뒤에ᄂ 마암이앙큼히지며리일이나모레 안으로쳥경부인이나되어가ᄂ것갓ᄒ며그놈이엇던놈인디 ᄒ로밤ᄂ에깜작 고혹ᄒ야이모양으로셔드ᄂ나고 ᄒ얏더니이년이의리업시ᄂ다려 제집에잇지말 나가라ᄒ니다 그년의쇼위가괘심ᄒ야그즉시나와셔 이집으로와잇슴니다그놈을치큰으셔々단々히한번골녀주시고그놈은안이라그년ᄭᅡ지도혼ᄯᅥ입을식일수잇스면 됴케슴니다」ᄒ기로나ᄂ어름々々디답을ᄒ고 그길노금냥의집에를차자가니 금냥이ᄂ호주가업고 체ᄎ유로영업을ᄒᄂ계집이라 쳐엄에ᄂ싱파리갓치ᄯᅢ다가경찰셔의보고를보앗다ᄒ며련동갓치윤ᄂ며 무르니가져도겁이 나던지말을ᄒ기를그거누군지ᄂ 자세몰나도지작년에경셩에셔 쥬샹영업ᄒ ᄯᅢ에한두번와셔술먹고ᄂ는이엇며니어달조사일밥에차져와셔체집에셔자고간일은잇슴니다기에드ᄅ보니모밀도업셔오」ᄒ면분슈허계밀면口을ᄒ기로그사ᄅ의셩명이무엇어며거쥬ᄂ엇의며나 ᄒ즉 거쥬와일홈은 알지못ᄒ야도정박씨라고ᄒ더라고ᄒ기에 또다시쵸저녁에와다가 발셔에잇의를가며니셔버에다시 은일이잇ᄂ냐무른즉술은슈々ᄒ기로々ᄒ며업못말ᄂ잘안이ᄒ기로

▲신구젹체▼

京城 仁壽洞 再生堂藥房

▲노인히소신약▼

社告

木浦支局의組織變更

今般木浦支局의組織을左와如히變更ᄒ고從來本報取扱ᄒ던鄭萬錫은支局과一切關係가無ᄒ오니七月末日以前의報代ᄂ鄭萬錫에게支拂ᄒ고八月一日以後의報代ᄂ總務梁琪煥에게支拂ᄒ시압

支局長 金容根
總務 梁琪煥
記者 崔采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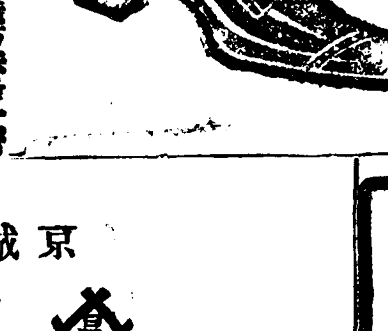
但木浦支局의管轄區域은如左홈
木浦府 務安郡 咸平郡
海南郡 羅州郡 珍島及靈岩郡의一圓

廣告 朝鮮日報社

最新式洋服製度를求ᄒ라면

慶善洋服店

京城黃金町壹丁目
(夏節洋服을特別勉强으로諸位에게應酬홈)



試驗的一次注文??

弊店은要領ᄒ시ᄂ四海諸位의셔最新式流行洋靴ᄅ二十世紀適當ᄒ靑年洋靴를注文ᄒ시라면新興洋靴店으로一次試驗ᄒ시오本品은多年腦心研究ᄒ結果製造方法을一層改良ᄒ와諸位에게進呈코져ᄒ오니江湖諸賢은一次試用ᄒ시옵 但地方에ᄂ代金引換으로酬應홈

京城府堅志洞百九番地
新興洋靴店
主 金貞培

京城府仁寺洞三十番地

昌興洋靴店

一次試驗的注文ᄒ시옵

精良ᄒ原料와特殊ᄒ技術로堅實과誠心으로製造ᄒ本店洋靴가不知中江湖諸氏의愛顧를蒙ᄒ야現今朝鮮洋靴界에第一名聲을博ᄒ고注文이踏至ᄒ니다 但地方은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홈

鍼灸醫生文基洪氏 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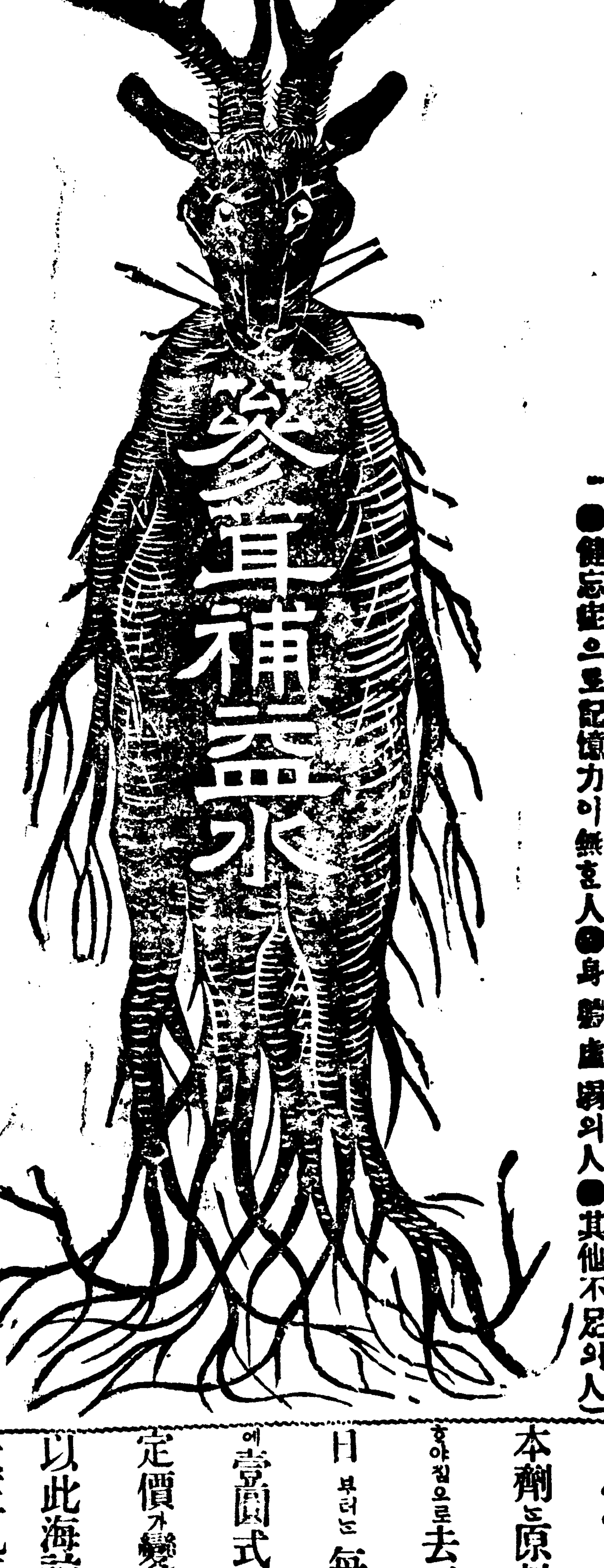
本人이大風與咽喉症으로近六年間에百藥이無效ᄒ고百醫가不治ᄒ더니今般釜山富平町三丁目醫生文基洪氏診察을受ᄒ야鍼灸用藥의三週日間에完快ᄒ얏기感謝ᄒ홈

釜山府牧下古〇七番地 朴萬鍾 告白

夏節에口味를失ᄒ고氣力이疲困ᄒ신이ᄂ速히蔘茸補益水

를服ᄒ시요先히胃經을補ᄒ야口味을振케ᄒ며元氣를助ᄒ야疲困ᄒ을免케ᄒ기ᄂ累萬人의實驗뿐外라施服幾日이면其實을可知이외다

●事務를執ᄒ에元氣가無ᄒ人●腎氣不足의人●房事不容의人
●慵가重ᄒ야직근직근痛ᄒ人●腎虛腰痛의人●手足厥冷의人
●便秘、逆上、不眠의惱ᄒᄂ人●顔色蒼白의人●遺情多夢의人
●健忘症으로記憶力이無ᄒ人●身體虛弱의人●其他不足의人



二十日分 四圓
一個月分 五圓
二個月分 九圓五十錢
三個月分 十四圓

引換小包料每月分卄八錢式其他包代가有ᄒ고郵便으로注文ᄒ時ᄂ郵料先送ᄒ시요

京城鍾路二丁目二十二番地
電話二〇一一番 振替四七二一番
實驗各種製造發賣
模範賣藥商會 李玉仁

急告

本劑ᄂ原料가高貴ᄒ야집으로去三月十六日부터ᄂ每個月分에壹圓式을値上ᄒ야定價가變更되엿사오니以此海諒ᄒ심을敬告

大正九年三月十六日

(漢藥社)

▲本社의特製藥

保和丹 (消化良藥) 効能 保脾和胃、吐瀉霍亂、水土不服、其他腹痛、消化食滯、中暑中熱、山嵐瘴瘧、痞滿癥劾 定價 一包(六十粒) 拾錢

調經益嗣丹 (婦人聖藥) 効能 經血不調、帶下淋漏、經脉失常、孕胎不安、久不受妊、經行腹痛、可調妊、保胎無憂、產後諸病、除去雜病 定價 一個月分 四圓

化痰丸 (治痰仙藥) 効能 痰核瘀血、哮喘反胃、中風癱瘓、頑痰痼結、變成癲癇、眩暈耳鳴、失志癲狂、積年怔忡 定價 一月分 三圓

落梅丸 (梅毒根治) 効能 梅毒、咽喉病、甘瘡、關節炎、淋疾、神經痛、肥疾、皮肉腫痔、子宮炎、血管硬化症 定價 一月分 四圓

消滯丸 (消滯妙藥) 効能 消化不良、胸腹滿痛、新舊食滯、積聚上衝 定價 三日分 三十錢

消腫罷排水 効能 跌打損傷、諸般腫毒、落傷青腫、立見消散 定價 十五瓦入 二十錢

截瘧丸 (瘧疾名藥) 効能 一日瘧、二日瘧、間歇熱(振寒身熱) 定價 三日分 參拾錢

無憂膏 (腫症靈藥) 効能 瘡疽腫痛、筋骨作痛、瘡癬濕痒、濕核流注、破傷諸腫、內癰諸疾 定價 一包 拾錢

萬應膏 (消腫新藥) 効能 別消腫排膿、去舊生新 定價 一包 拾錢

唐麝香蘇合元 効能 霍亂吐瀉、內腹脹滿、一切氣疾、食滯腹痛、中暑中惡、小兒驚風 定價 一包一介入 四拾錢

本社에셔高麗人蔘鹿茸唐草乾材를貿入發賣ᄒᄂ中特別이賣藥製造部를設置ᄒ고古來妙方의丸散과其他藥品을當世國手의妙方을受ᄒ야精製販賣ᄒ오니僉君子ᄂ請求試用ᄒ심을爲要

京城府光化門通二一〇九
蔘茸唐草乾材 有名賣藥製造
漢藥社
長電話一六四二番 振替口座京城四四六五番